



U-17 월드컵 축구 4강 '대륙 전쟁'

아프리카 VS 유럽 자존심 대결

아프리카와 유럽이 대륙의 자존심을 걸고 4강 진출을 벌인다.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8개 도시 그라운드를 수놓아온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 2007이 이제 준결승과 3·4위전, 결승까지 딱 네 경기만 남겨뒀다.

가나와 스페인이 5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먼저 결승행을 다퉐된다.

'아프리카의 꿈은 별' 가나는 1991년과 1995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가나는 5골로 득점 2위 랭킹으로 오세이와 사디 아답스가 빼어난 결정력을 자랑한다. 16강과 8강에서 남미 강호 브라질(1-0), 페루(2-0)를 연파해 팀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5일 가나-스페인 (울산)

6일 나이지리아-독일 (수원)

강까지 프랑스, 일본, 아이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를 모두 90분 안에 격파했다. 매클리 크리산투스는 6골로 득점 선두.

예리한 창과 든든한 방패를 동시에 갖춰 가나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정상을 넘보고 있다.

'어린 전차군단' 독일은 24개 출전국中最 많은 17골로 평균 3.4점을 뽑아내며 무시무시한 활력을 과시하고 있다.

샤샤 비갈케, 토니 크루스, 데니스 도비나트 등 천재성이 돋보이는 미드필더 3인방과 파워 넘치는 해결사 리카르트 수쿠타-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고비가 될 걸로 봤던 8강에서 잉글랜드를 4-1로 대파했다. 독일은 1회 대회 준우승 이후 22년만에 결승 진출을 노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하키대회 3일째 예선 B조 3차전 한국(세계 6위)과 인도(세계 8위)의 경기에서 흥은성(가운데)과 인도 선수가 볼을 다투고 있다. 이연희 기자

평가전서 난투극 꼴불견

한국-카타르전 2명 퇴장

박성화호, 무득점 무승부



6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을 노리는 박성화호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2차전 바레인전 가상 상대인 카타르와 득점 없이 비겼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알 알리스타디움에서 끝난 카타르 올림픽대표팀과 평가전에서 20세 이하(U20) 대표팀 선수들 대거 선발로 내세웠지만 끝내 골 멎음을 보지 못한 채 0-0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전반 중반부터 잊은 패스미스로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후반 중반 몸싸움으로 백지훈(수원)과 상대팀 선수가 나란히 뇌진탕당하는 '꼴불견' 속에 평가전의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

심영성(제주)-신영록(수원) 콤비가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고 박주호(충남대)와 이상호(울산)가 좌우 측면 날개로 배치된 한국은 경기 초반 활발한 좌우 침투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 나갔다.

한국은 전반 7분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정인환(전북)의 숏이 크로스바를 넘고, 전반 21분 신영성의 오른쪽 크로스를 신영록이 머리로 맞혔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하지만 전반 중반 들어 허리에서 최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번번이 막히고 의욕적으로 날린 중거리슛은 골대를 외면하면서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박성화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근호

6회 연속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3일 저녁(현지시간) 두바이 리시드 스타디움에서 카타르와 가진 평가전에서 후반 백지훈과 카타르 빌랄의 몸싸움을 벌dan으로 양팀선수들이 엉겨붙고 있다. 두선수는 퇴장당했다. /연합뉴스

(대구)의 대안으로 출전시킨 박주호를 빼고 김승용(광주)을 투입하고 한동원(성남), 하태균(수원), 백지훈, 김창수(대전), 강민수(전남) 등 주전급 선수들을 잇따라 교체출전시키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후반 2분 신영록의 재치있는 중거리슛은 크로스바를 지나치고, 하태균과 호흡을 맞춘 김승용의 헤딩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특히 한국은 후반 10분께 포백(4-back)라

인이 한 번의 침투슛에 뛰리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카타르 역시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이면서 무득점의 행진이 이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男핸드볼 올림픽행 '실낱희망'

아시아 예선서 2위 하면

내년 IHF 예선 출전 가능

편파판정 속에 20-28로 석패했던 한국은 3일 독일 심판의 공정한 경기 진행 속에 재기량을 발휘하며 카타르를 35-14로 완파했다.

한국의 중간 전적은 1승1패. 일본, 카타르와 동률이다.

편파판정 덕으로 2승을 올린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가 사실상 우승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은 내년 5월에 열리는 국제핸드볼연맹(IHF) 자체 예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우승을 차지해야 한다.

작년 말 도하아시안게임부터 편파판정에 시달렸던 한국은 카타르를 대파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50-SBS 스포츠)

▲프로야구(SK-LG)(18:00-KBSN SPORTS), <롯데-현대>(18:30-MBC ESPN)

6일(목)

▲US OPEN 테니스 남단식 16강/여단식 8강(00:00-Xports)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미우리>(17:

이천수 출국절차 남아 네덜란드행 미뤄질듯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으로 이적한 이천수(26)가 출국 및 취업허가 등의 문제로 팀 합류는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페예노르트는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천수는 2주 후에나 로테르담에 올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이천수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아 출국시 특별 허가 필요하다. 그 절차가 끝나는 데 1주 정도 걸린다. 이천수는 또 비(非)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선수에게 필요한 취업허가 발급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천수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예술·체육요원 신분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4월 4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복무 기간 34개월이 지난지 않아 해외국가 여행시 문화관광부 추천서를 받아 병무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천수의 전 소속팀 울산 현대와 페예노르트는 유럽 프로축구 이적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이적 계약을 완료했다. 이천수도 국내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팩스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 등 페예노르트 입단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국제여행부 기법령과 '가장 좋은 국민 사랑입니다' 캠페인
제작 '소비자가 좋은 좋은 경고상'을 소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낚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지암 0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립캡슐

베타민 A, C, E의 보급
- 흐름이나 일상 생활에 복통이나 통증이나
- 체력 저하나 체온 저하나 노년기
- 눈의 건조증의 완화, 이명증
- 맷돌 피부염 등이 이러한 적소침착
- 페리-주관체 드링크, 이화음료
- 비말증(喘息)
- 맷초등학교 3학년 및 초등학교 4학년
- 중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 수족화장 등에서 유익한 영양제
이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tene.com

고객을 위한 면밀한 서비스 080-022-2200